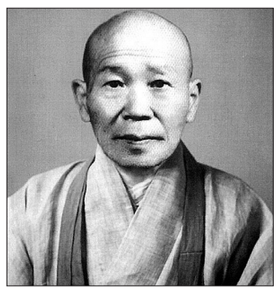
근대 佛母 일섭 스님, 학술적 조명된다

일섭문도회, 10월 8일 첫 학술세미나 개최



근대 시기 최고의 불모(佛母)로 활동한 일섭 스님〈사진〉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이사장 김성규)는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근대 불모 일섭 스님의 작품세계'를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연다.

그간 일섭 스님에 대한 연구는 스님이 빠지지 않고 쓴 일기인 〈연보〉를 토대로 생애를 조명한 석사학위 논문이 전부로, 스님의 작품세계를 학술적으로 살피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섭 스님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불모 유성 스님의 맥을 이어 근현대 시기 불모로서 활동을 해왔다. 스님은 14세에 전남 송광사에서 출가해 19세에 한봉린 스님을 만나 불화를 처음 그렸고, 23세에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각지 불모들과 교류했다. 또한 이 시기 보응 스님을 만나 문하로 들어갔다.

이후 일생동안 해인사 사천왕탱화, 조계사 후불탱화, 송광사 시왕각부탱화, 옥천사 팔상탱화, 백양사 사천왕 소조상 등 북한 함흥 · 연변부터 남한의 제주까지 전국의 주요 사찰의 불화, 단청, 불상 등의 불사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불화부터 불상, 단청에 이르기까지 불교미술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일섭 스님의 작품세계를 고찰한다.

주요 발제로는 정병국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가 '화사 일섭의 불화양식 고찰', 곽동해 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가 '화사 일섭의 단청양식 특성에 대해', 이숙희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일섭 스님의 조각세계' 등을 진행한다. 발제에 앞서 신은영 송광사 성보박물관 객원 연구원이 일섭 스님의 연보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세미나 토론자로는 김승희 국립전주박물관장, 박현수 동국대 미술학과 겸임교수, 심영신 홍익대 강사 등이 참여한다.

김성규 불교미술일섭문도회 이사장은 "일섭 스님은 약 1천여 곳의 사찰에서 불사를 맡아 진행했고 불화, 단청, 공예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 현대불교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하지만 스님의 작품세계에 대한 학술적 조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한국불교미술의 맥을 정리하고,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전통산사' 보존관리 활용방안은?

등재추진위, 10월 7일 3차 국제학술회의

'한국의 전통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0월 7일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3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연속유산의 보존관리 활용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미셸 코트(프랑스 낭트대학교 명예교수)의 '연속유산 보존관리 계획 : 신규 등재신청서에 대한 요구사항'이란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구오 짠(이코모스(ICOMOS)중국위원회 부회장), 페카 티틸라(핀란드 국토조사국), 히로시 츠지바야시(와카야마현 세계유산센터 국장) 등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연속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연속유산의 보존관리 활용방안과 세계의 연속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회의에 앞서 10월 6일에는 신청대상 유산 중 하나인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일원의 답사를 진행한다.

등재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속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 방향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면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는 '한국의 전통산사'의 국외 전문가들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등재 가능성을 높이고, 보존관리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원효 사상 · 저술, 세계 불교에 지대한 영향"

동국대 세불연, 울산대 연구단 공동 학술대회

동아시아 · 미국 · 유럽 불교에 원효 사상 미친 영향 분석

유럽 원효 연구, 아직 미흡
한국 · 유럽 공동연구 필요해

美, 기신론 주석 연구 활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사상가 중 한 명인 원효 스님(617~686)의 사상이 세계 불교학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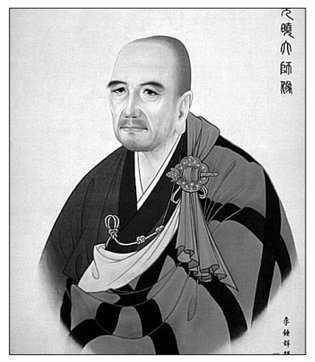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와 울산대 원효토대연구사업단은 9월 24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분황 원효와 세계 불교학'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원효 스님이 보여준 여래장인식과 불성론의 이해를 살피고 후대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 주석서만 8권을 쓸 정도로 〈대승기신론〉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원효는 주석서들을 통해 일심의 철학을 공고히 했고, 일심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아려야식 개념과 여래장 개념을 적절히 원융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심 여래장 사상은 동시대는 물론 후대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태현 스님의 경우 원효와 법장의 〈기신론〉 주석을 엄밀히 분석해 〈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를 저술했다. 그는 두 사람의 주석을 종합하면서도 이들 견해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이후 통일신라대까지는 원효의 여래장 인식과 불성 이해의 지형에 영향을 받은 저작들이 간행됐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선학이 성하면서 원효의 여래장 인식과 불성 인식과 이어질 수 없었다는 게 고 교수의 주장이다.

고 교수는 "원효는 지식사회에서 존재감을 지니지 못했지만, 왜란 등 국난 위기때마다 민족 상징으로 되살아났다"며 "조선 후기와 대한 시대에는 그를 기리는 영정과 벽화들이 그려졌고, 설화들도 산발적으로 재생산됐다"고 설명했다.



원효 스님 진영. 원효 스님의 사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최원호 연세대 외래교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원효 연구 현황을 분석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유럽에서 원효 연구는 아직 발아(發芽) 단계이다. 논문으로는 이계선 신부의 1976년 파리 7대학 박사 논문으로 '7세기, 신라의 원효대사: 생애와 저술 포교활동'과 자신의 EPHE 박사 논문인 '존재론의 근거로서의 일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의 번역과 주석' 정도이다.

최 교수는 "한국 불교 고전의 번역뿐만 아니라 오늘의 뛰어난 불교 연구소들의 편찬을 예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금강대 연구교수는 원효 스님의 사상이 미국불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했다. 그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불교학자인 로버트 버스웰, 박성배, 찰스 뮐러, 리차드 맥브라이드의 원효 연구를 분석했다.

이들 학자들의 연구는 차이점도 상당히 있지만, 공통적으로 △원효는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위대한 승려 △원효가 보여준 광범위한 분야와 그에 대한 학문적 태도 △저술의 목적이 화쟁에 있다는 사실 △원효가 〈대승기신론〉을 사상의 중심에 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 활동 학자들은 원효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저술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가을 공개행사 '풍성'

진관사 · 삼화사 · 백운사 등
수륙재 10월 초 · 중순 개최
승무 · 탈놀이 등도 잇달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화사 수륙재의 모습. 올해에도 삼화사, 진관사, 백운사의 수륙재를 일반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수륙재, 승무, 탈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들의 흥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개행사가 가을 맞아 잇달아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 · 예능 공개행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고 9월 29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불교 무형문화재 행사는 수륙재이다. 이승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불법(佛法)을 설명하는 종교의식인 수륙재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25 · 126 · 127호로 삼화사 · 진관사 · 백운사 각 사찰의 수륙재가 지정돼 있다.

조선 초기 이후 모든 수륙의 고혼 천도를 위하여 행해졌던 백운사의 '아랫녘 수륙재'는 10월 7~8일 백운사 경내서 열린다. 또한 조선왕실 주도로 이뤄진 진관사 수륙재는 10월 8~9일, 삼화사 수륙재는 10월 14~16일에 봉행된다.

가을 하늘 아래 운치를 더하는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궁궐 공개행사 토요마당'으로 각양각색의 예능 공개행사가 열린다. 우선 10월 1일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보유자 이애주 선생의 공연을 시작으로 △제39호 처용무(처용무보존회, 10월 8일),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보유자 강정열, 10월15일) △제30호 가곡(보유자 김경배, 10월22일) △제16호 거문고산조(보유자 김영재, 10월29일) 등 전통문화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기능 보유자의 다채로운 시연과 전시도 이뤄진다.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김각한은 10월12~18일 서울 강남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제107호 누비장 보유자 김해자는 10월21~23일 경주 교촌한옥마을 손누비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현대를 대표하는 불모(佛母)로 잘 알려진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 박찬수 씨는 10월28~11월6일 경남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에서 전시회를 연다.

사찰 불사의 달인들의 공개행사도 마련된다.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최기영은 학림사 오등선원서 보유자 신응수는 10월 29일 충남 공주시 성재 전통건축자료관에서 공개행사를 갖는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02)3011-215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신론소 돈황사본 전문 강독회 열린다

금강대 불문연, 10월 7~9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돈황사본 전문강좌- 돈황사본 〈대승기신론〉(羽333V)' 집중 강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독회의 주제인 〈대승기신론소〉(羽333V)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새롭게 발견한 돈황문헌으로 현존하는 〈대승기신론〉 주석서인 〈대승기신론의소〉보다 오래된 것이다.

3일 동안 이뤄지는 강독회의 발제는 이케다 마시노리(금강대)가 맡으며, 강사로는 은정희(서울교대, 7일), 안성두(서울대, 7~8일), 백진순(동국대, 8일), 김천학(동국대, 9일), 최연식(동국대, 7~9일), 박인석(동국대, 9일)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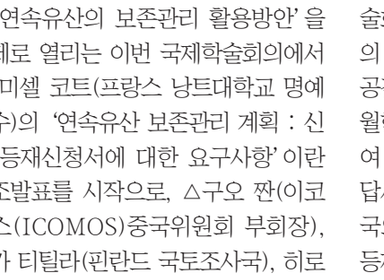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연구소가 발굴한 〈대승기신론소〉(羽333V)를 해독함으로써 〈대승기신론〉의 최초기 수용 과정 등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문헌 연구의 현재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셔, 그 동안 연구소가 강독해 온 결과물을 놓고, 한국 불교학계 최고 수준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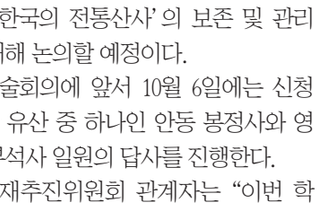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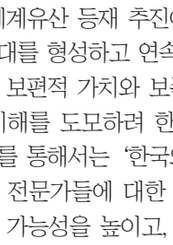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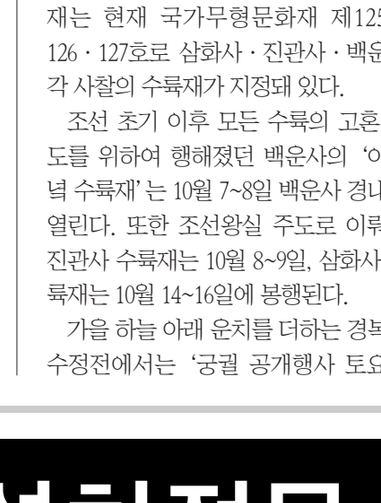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